

지역 매 아리



김제시 부시장

호남을 이끈 서에게 원류(原流)답사

김제시 부시장(허전)은 근대 호남을 대표하는 문인이자 호남 서에게를 이끌었던 석정 이정직 선생과 유재 송기면, 강암 송성용 등 걸출한 서에게 거목들이 태어나고 활동했던 김제 백산면 요교마을 일원을 답사하며 현재 추진 중인 문화사업의 방향성 설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답사는 김진돈 전라북도 문화재위원의 안내로 석정이정직선생의 생가를 방문하여 석정선생의 삶과 예술 세계에 대해 알아보고, 석정의 수제자였던 유재 송기면선생이 어릴적 석정선생에게 학문을 청하기 위해 지은 '관선당'을 방문하여 호남 서에게의 계보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유재 선생과, 강암 송성용 선생이 학문과 예술세계를 펼쳤던 '요교정사'를 방문하여 김제가 지니고 있는 서예사적 가치를 알아보고 향후 김제시 예술품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 부시장은 이날 현장을 둘러보며 "김제출신의 서예가들이 호남서예를 대표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유적지들이 더 이상 훼손되거나 멸실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보였고, 이에 답답자는 "유재 송기면 선생의 생가들이 허물어지는 등 보존대책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며, 향토 문화유산 지정을 통한 보존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만경읍 복지기동대, 집수리 선행 봉사

김제시 만경읍 복지기동대(대장 허진섭)는 최근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찾아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를 실시하는 소규모 집수리 봉사를 실시했다.

수도관에서 물이 새 수도를 사용할 수 없었던 이 가구는 복지기동대의 도움의 손길로 새 수도관으로 탈바꿈 되었다. 이날 복지기동대원들은 실외에 있는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땅을 직접 파내고 수도관과 수도꼭지를 교체하였으며, 새 시멘트를 발라 원상태로 복구했다.

수혜대상자 이모씨(73)는 "대원들 덕분에 이제 다시 편리하게 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미래성장 동력 사업 발굴

## 완주군, 2021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국가예산 5000억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박성일 군수가 내후년 국가예산을 담은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면밀한 준비와 발 빠른 대응을 당부하는 등 결연한 의지를 피력했다.

완주군은 지난 18일 박성일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소득과 삶의 질 높은 대한민국 으뜸행복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2021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국가예산 확보를 둘러싼 환경 변화가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조기에 전략을 세우고 군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정시책, 정부 경제 정책방향, 생활밀착형 SOC사업 등 군 정책과 연계한 신규 국가예산

사업 52건에 총사업비 3,205억 원(국비 2,036억 원) 규모의 미래성장 동력 사업 발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주요 발굴사업으로는 국도지선(용진~완주산단) 개설, 도시재생 뉴딜 등 30만 도시기반 마련을 위한 주민 생활기반 사업 8건을 비롯 완주군 아동·청소년 전용 복합문화 공간조성, 완주 역사박물관 등 50만 정주여건 실현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14건, 수소경제 활성화 후속사업, 소셜굿즈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등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 경제 분야 4건 등이다.

완주군은 이번 발굴한 국가예산 사업과 관련해 도·부처 의견수렴과

지역 각계 전문가를 활용해 사업조서를 보강하고 정부정책 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구체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완주 발전을 견인할 선도사업으로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박 군수는 "완주군은 현재 15만 자족도시 비전 실현이라는 중대기로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소득과 삶의 질 높은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기틀 마련을 위해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더 면밀한 준비와 발빠른 대응, 그리고 발로 뛰는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하게 주문하는 등 2021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 의지를 살피었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대문산관광호텔에서 도내 14개 시군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계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라북도 대표회를 개최했다.

## 민·관이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 만들기

### 완주군, 제6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북대회 개최

완주군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대문산관광호텔에서 제6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라북도 대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전북도가 주최하고 완주군,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따뜻한 복지, 다함께 행복한 복지! 함께해요 민관협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도내 14개 시군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계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각 지역 협의체간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정보교류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민관협력으로 복지사업 발굴에 기여한 전주시 김모씨 외 4명의 유공자 표창과 웰컴 김미경 대표의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 순으로 진행되었다. 둘째날인 18일에는 KBS 김태은 아나운서의 '대통령을 웃긴 여자'라는 주제로 특강이 이어졌다.

단풍이 절정에 오른 대문산도 탐공원에서 개최된 이번 지역대표회는 음식에서 어려운 이웃을 보살

피고 소외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전복을 만들어가는 민관협력의 주축이 되는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대문산 관광지에서 마련되었다. 14개 시군의 지역복지 슬로건과 카드섹션 퍼포먼스로 전복이 하나됨을 알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등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행사를 개최한 박성일 완주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주변의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계신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 김제시, 찾아가는 도민 인구교육 실시

김제시는 지난 18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민 및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도민 인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강지영 인구교육 전문강사는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외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인구절벽 문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크게 이바지했다.

교육에 참석한 시민들은 "뉴스로만 접하던 인구절벽 위기를 직접 실감할 수 있었고, 새로운 가족문화 개선을 통해 저출생과 고령사회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나부터 노력해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전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시도 성장 동력 핵심축인 청년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인구성장 기반이 약화되었으며, 출산을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저출산에 대한 대비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인구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8월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주택수당, 전입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캠페인 전개, 유관기관 협약식 개최 등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

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는 18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행정사무감사는 다가오는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의회는 행감을 앞두고 2019 행정군민 제보 현장접수센터 및 인터넷,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군민들에게 직접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등 생생한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는 제보 내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수는 전년 대비 172건이 증가한 501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폐기물매립장 사태로 불거진 환경전반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그동안 의회 5

분발문 및 군정질문을 통해 줄곧 지적 건의되었던 사안, 위탁 및 보조사업 관리실태, 군 역점사업 추진사항, 예산집행의 적정 공정성 등 군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요구자료 증가 주요부서는 군 정책을 총괄하는 대표지원부서인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재정관리과가 있으며, 군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부서인 환경과,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으로, 이는 해당 부서별 조직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감증을 위함이다. 행정특위 이경애 위원장은 행감이 군정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지만, 이번 행감은 '군민의 기본적 삶의 총체적으로 살피고, 더 나아가 완주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모색해가는 생산적인 행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 김제시보건소, 어린이 편식예방을 위한 시화전 개최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관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식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 등을 김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한다.

이러한 취지로 매년 전시회를 열고 있으며, 올해 전시회는 15일에 시작되어 19일까지 김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동서로 126)에서 진행된다.

이번 시화전은 '벼리·토리와 떠나 오색나라 이야기'라는 주제로 채소, 과일 등 다양한 색깔의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여 어린이들의 편식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관내 6~7세 어린이 및 교사 300명이 공모하였으며, 수상작을 포함한 250편의 시는 센터를 방문한 총 300~500명의 관람객에게 전시된다.

출품된 동시는 김제시보건소 관계자, 교육지원청 장학사,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 동시 작가 등의 심사를 거쳐, 18일(금)에는 김제시 장상(옐로우상) 2인, 보건소장상(레드상) 2인을 포함한 32인이 수상한다.

시화전에서 어린이들은 채소·과일에 대한 생각을 풀어내고, 어른들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를 접하는 기회를 통해 미디어에 익숙한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건전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전시장에는 채소·과일의 생장과정, 모양, 단면 관찰하기, 수확하기, 시식하기 등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옥천아스콘(유)**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협에 대한 지속적 경계